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캄보디아

Kingdom of Cambodia

2018년12월28일 | 책임조사역(G3) 이광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81천 km ² 	인구 16.25백만명 (2018년 기준)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대외정책 비동맹 친서방 
GDP 241.41억 달러 (2018년 추정) 	1인당GDP 1,485.33 달러 (2018년 추정) 	통화단위 Riel 	환율(U\$기준) 4,053.90 (2018년 추정) 

-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1953년 11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입헌군주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 중임.
- 대표적 산업인 봉제 산업과 관광업을 바탕으로 최근 7%대 경제 성장세를 지속 중으로 2015년 기준 1인당 GNI가 1,070달러를 기록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분류 상 저중소득국에 편입되며 농업 중심의 최빈국 지위에서 벗어났음.
-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액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였으며, 경제 규모 대비 안정적인 수준의 외채 비중을 유지 중임.
- 한편, 2018년 7월 총선에서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하원 125석 전(全)석을 차지하며 집권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나, 2017년 야당 강제 해산 및 언론사 탄압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며, 이에 비판적인 입장인 EU,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7. 10. 30 외교관계 재개 (북한과는 1964. 2. 28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1964), 투자보장협정(1997), 경제기술협력협정(1997), 항공운수협정(200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협정(2001), 사증면제협정(2006), 범죄인인도협정(2011), 무상원조협정(2014)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652,765	572,856	603,846	면직물, 자동차, 알루미늄
수 입	216,527	239,773	261,326	의류, 산업용 전선, 잡화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총투자기준) 850건, 2,296,055천달러(2018년 6월말 기준)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7.2	7.0	7.0	6.9	7.0
소비자물가상승률	3.9	1.2	3.0	2.9	3.3
재정수지/GDP	-1.7	-1.3	-1.4	-1.9	-3.9

자료: IMF, EU

수출 및 정부 지출 증가로 7%대 경제성장세 지속

- 2017년 기준 서비스업(39.7%), 산업(제조업)(30.9%), 농업(23.4%) 및 기타(6%)로 구성된 캄보디아 경제는 2017년 GDP 대비 60.8% 규모를 기록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견조한 증가(전년 대비 증가율 : 10.3%)에 힘입어 2018년 전년 대비 6.9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봉제 산업)** 2016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65%를 차지한 봉제 산업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제조업이며, 캄보디아의 값싼 노동력은 동 산업의 외국인 투자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주요 수출국인 EU(수출비중 : 34%)와 미국(수출비중 : 26%)의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 특혜가 캄보디아 봉제 산업이 성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단순 가공 위주의 작업으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의 특성상 최근 캄보디아 최저임금의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총선 관련 유럽과의 갈등이 점증하고 있고 관련 무역제재가 시행될 경우 봉제품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 **(관광업)** 캄보디아의 관광업은 2018년 7월 총선을 전후로 국내외 소요 사태가 이어진 것과 별개로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2018년 반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13.6% 증가한 3백만 명의 관광객이 캄보디아를 다녀간 것으로 추산됨.
- World Bank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이 5.6백만 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2018년 캄보디아 관광업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방객 수 기준으로 캄보디아의 관광업은 절대 규모에서 인접국가 수준(태국 35.4백만 명, 베트남 12.9백만 명)에는 못 미치는 상황임.
- 최근 GDP의 5%대 수준을 유지해 온 정부지출(2017년 기준 5.1%)은 2018년 GDP 대비 5.6%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3.8% 증가함. 정부 지출은 공공 투자, 보조금 확대, 공공 임금 지급 등의 경로로 민간에 유입되어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캄보디아 경제는 미국, 유럽 등 주요 봉제 제품 수입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특혜 관세 중단 가능성, 후발 신흥국인 미얀마, 방글라데시와의 경쟁 격화 등에 따른 봉제 산업 성장률 저하 예상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하여 2023년 5.9%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

3% 대 안정적인 수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유지

- 캄보디아 경제는 달러 통용화(Dollarization)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지속된 6~7% 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내외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지 중임.
- 달러 통용화는 경제 전반에 공식 화폐가 아닌 달러화가 쓰이는 현상으로,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달러화 예금이 총 예금액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됨.
- 달러화는 1993년 이후 UN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후 급속하게 캄보디아 경제 내에 통용되었고 현재 공식 화폐인 리엘(Riel)은 주로 거스름돈이나 소액거래에 활용되는 상황임.
- 2018년 캄보디아 물가상승률은 민간 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IMF에 따르면 향후 3% 초반대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전망

- 캄보디아의 재정수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조세 수입이 전체 정부 수입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수 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음. IMF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심화되어, 2020년 -4% 중반대를 기록하고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정부 지출의 구성에서 경상적 지출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적 지출(37%)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대외거래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 상 수 지	-1,414	-1,567	-1,688	-1,782	-2,432
경상수지/GDP	-8.6	-8.7	-8.4	-8.0	-10.0
상 품 수 지	-3,852	-3,949	-3,847	-4,278	-4,712
상 품 수 출	8,170	9,336	10,273	11,224	12,825
상 품 수 입	12,022	13,285	14,119	15,502	17,537
외 환 보 유 액	5,527	6,761	8,245	11,105	12,206
총 외 채	7,917	9,328	10,230	11,040	11,989
총외채잔액/GDP	47.9	51.5	50.9	49.8	49.3
D.S.R.	5.3	5.7	5.6	3.9	3.7

자료: IMF, EIU

GDP 대비 10% 대 경상수지 적자 지속 전망

- 캄보디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최근 정부 지출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의 소비여력 확대가 수입 증가로 이어져 상품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한편, 관광객 유입 증가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개선이 경상수지 적자 폭을 일부 상쇄하고 있음.

* 상품수지(억 달러) : -38.5('14년) → -39.5('15년) → -38.5('16년) → -42.8('17년) → -47.1('18년^f)

서비스수지(억 달러) : 17.3('14년) → 17.1('15년) → 16.0('16년) → 18.8('17년) → 20.4('18년^f)

자료: IMF, EIU

- EIU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2020년 GDP 대비 17.5% 수준까지 확대된 이후 관광업 활황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 원유 생산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으로 점차 감소하여 2023년 GDP의 10.7%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안정적인 수준의 외채 상환능력 보유

- 2017년 캄보디아의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34.7% 증가한 111억 달러를 기록하여 월평균수입액 대비 6.6개월 수준, 단기외채 잔액의 4.3배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중임.
- 2018년에도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가 이어져 2017년 대비 9.9%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FDI 순유입액(억 달러) : 16.7('15년) → 21.6('16년) → 23.8('17년) → 25.8('18년^f)

FDI 순유입액(GDP 대비 비중) : 9.1('15년) → 10.8('16년) → 10.8('17년) → 10.9('18년^f)

자료 : World Bank

경제 규모 대비 외채 비중은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높은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49.8% 수준을 기록하였고 2018년 4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총외채 중 중장기외채 비중이 약 74.2%로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였고, 원리금상환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말 기준 3.9%를 기록함.

*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 7.8('15년) → 8.2('16년) → 6.3('17년) → 6.7('18년^f)

** D.S.R.(%) : 5.7('15년) → 5.6('16년) → 3.9('17년) → 3.7('18년^f)

자료 : OECD

구조적취약성

봉제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제조업 기반 취약

- 캄보디아는 후발 개도국으로서 별 다른 천연자원이나 제조업 생산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음. 봉제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으로 동 발전 전략에 부합하였고, 2016년 기준 캄보디아 전체 수출액의 65%를 차지하며 캄보디아의 대표 산업이 되었음. 또한 의류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서 캄보디아는 글로벌 의류기업들의 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음.
- 한편,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가 2018년 3월 실시한 국가별 봉제 산업 최저임금(월급) 조사에서 방글라데시 101 달러, 미얀마 135 달러, 캄보디아 170 달러로 드러나며 캄보디아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캄보디아 봉제산업의 최저임금(월급)은 전년대비 11% 인상되었으며 최근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저임금(달러)	100	128	140	153	170
인상률(%)	25.0	28.0	9.4	9.2	11.1

자료 : JETRO

- 또한, IMF, OECD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는 2018년과 유사한 3%대 경제 성장이 예상되나 캄보디아 봉제 산업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은 2019년 올해보다 낮은 2% 중반대, 유로존은 2%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캄보디아 봉제 산업의 성장세도 이에 따라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봉제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여력이 낮고, 최근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가능성 및 글로벌 경제 둔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봉제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경제 전반의 과도한 달러화 의존 상황

- 캄보디아는 달러 통용화의 영향으로 자국 화폐(Riel) 대신 비공식 화폐인 미국 달러화가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임.
- 미국 달러화가 경제 전반에 통용되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낮으며, FDI 유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이 제한되고,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워지며, 화폐 주조차익(IMF에 의하면 GDP의 약 10%로 추정)이 손실되는 단점이 있음.
-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인 바, 캄보디아 정부 당국은 리엘화 사용을 장려하고자 납세, 공무원 임금 지급 시 통화는 자국 화폐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점진적인 탈(脫) 달러 통용화 정책을 추진 중임.

성장잠재력

관광업 활성화 전망

- 캄보디아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관광업을 육성시키고 있음.
- 2017년 5월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2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China Ready" 전략을 발표하였음. 캄보디아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등 전략의 실행과 함께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한 2.4백만 명을 기록하였고 이에 힘입어 캄보디아의 2018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였음.
-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2017년 7월 캄퐁 주 소재 Sambor Prei Kuk 사원을 캄보디아의 3번째 유네스코 자산으로 등재시키는 데 성공하여 관광 저변을 확대하였음.
- 세계관광협회(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WTTC)에 따르면 캄보디아 관광업 종사자는 총 노동인력의 10%이고, 관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이며 동 비중은 향후 관광업 활성화에 따라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 캄보디아 관광부는 2018년 최소 6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업 육성으로 2025년까지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광물 자원 개발 가능성

- 캄보디아 정부는 1995년 태국만 연안의 자국 영해에서 발견된 해상 유전(예상 원유 매장량 : 20억 배럴*)에서 원유를 시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19년 석유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원유 시추 프로젝트는 최초 발견 이후 국제유가 변동, 캄보디아의 사업 추진 경험 미숙 및 사업 참여 기업 변경 등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2018년 10월 싱가포르 석유 및 가스회사 KrisEnergy가 캄보디아 유전에서 2019년 석유를 생산을 목표로 하는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하였음.
- 한편, 캄보디아석유화학회사(CPC) 및 중국 기업의 합작 투자로 시하누크빌 등에 건립될 정유 공장은 2019년 말 연간 300만 톤 규모로 가동을 시작해 2023년에는 800만 톤까지 생산을 확대할 예정임.
- * BP(구. British Petroleum)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따르면 전세계 원유 매장량은 1조 6,966억 배럴로 추정되며 국가별 매장량 순위는 베네주엘라(3,032억 배럴), 사우디 아라비아(2,662억 배럴), 캐나다(1,689억 배럴) 순으로, 캄보디아의 매장량 비중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크지 않은 상황임.

정책성과

농업 중심의 최빈국에서 빠른 속도로 산업 및 서비스 중심의 국가로 진입

- World Bank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1994 ~ 2005년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6%로, 세계에서 6번째로 빠른 경제 성장 속도를 기록하였음.
- 동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이 연평균 5.4% 성장하면서 캄보디아는 2015년 저중 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y)에 편입되었음.
- 동 기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양상을 보임.
-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45.3%에서 2017년 23.4%로 하락하였고, 농업부문 종사자 비중도 2004년 전체 노동인력의 58.4%에서 2016년 36.4%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농업부문의 비중 감소는 산업과 서비스부문의 비중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음.

장기적인 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 상위중소득국(UMIC), 2050년 고소득국(HIC)* 진입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장·고용·형평·효율을 4대 축으로 하는 사각 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실행 중임.
- 각 축은 매년 7% 대 경제 성장(성장), 청년층 고용 촉진(고용), 매년 빈곤율 1% 감축(형평), 제도개선·거버넌스·공공 서비스 개선(효율)을 목표로 함.
- 캄보디아 정부는 사각 전략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 운송 및 도시 인프라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5개년 국가전략 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 ~ 2018)을 실행 중임.

* World Bank 소득분류(2017년 달러 환산 소득 기준)

구분	저소득국 (Low Income Country)	저중소득국 (Lower middle-income Country)	상위중소득국 (Upper middle-income Country)	고소득국 (High income Country)
소득 (1인당 GNI)	995 이하	996 ~ 3,895	3,896 ~ 12,055	12,056 이상

2017년 기준 캄보디아 1인당 GNI: 1,230 달러

자료 : World Bank

- 한편, 2018년 11월 캄보디아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하여 IMF, EIU 대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World Bank조차도 캄보디아의 2030년 상위중소득국(UMIC) 진입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035년 진입으로 목표를 수정하더라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상위중소득국 도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연평균 1인당 경제성장률은 9.3% 수준임. 역사적으로 동 수준을 달성한 국가는 없었으며 한국이나 말레이시아가 현재 캄보디아의 상황에 대입된다 하더라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됨.

정치동향

훈센 총리 장기집권으로 정치적 혼란은 감소했으나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

- 2018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훈센 현(現)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 CPP)이 125석 전(全) 석을 차지하였음.
-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기 5년의 하원의원을 뽑는 동 총선의 투표율은 83.0%이며, 이중 CPP는 유효투표의 77.4%를 획득한 것으로 분석됨. 다수당에서 총리가 지명되는 의원내각제 특성상 훈센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리로 2023년까지 총 38년간 캄보디아를 지배하게 될 전망이다.
- 훈센 총리는 2017년부터 총선 승리 및 장기 집권을 위해 조직적으로 야당과 언론을 통제해 왔음.
- 인권·환경·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반정부 활동을 전개해 온 제1야당 캄보디아 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 CNRP) 대표인 켄 소카가 2017년 9월 반역죄로 구속·기소 당했음. 그리고 CNRP는 2017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강제 해산되었으며, 소속 정치인 118명의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었음.
- 또한 훈센 총리는 총선 1일 전 17개 언론사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등 언론을 탄압해 왔음. 이에 따라 선거 과정 및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 또는 집회 관련 언론 보도가 제한적인 상황임.
-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들은 이러한 훈센의 독재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실질적인 제재를 추진하여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켄 소카를 포함한 여당 정치인 20여명이 구금 1년 만에 석방되었음.

사회동향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부족

- World Bank은 캄보디아의 상위중소득국 진입을 위한 과제로 경기 과열 경계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뿐 만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제시하였음.
- 캄보디아의 봉제 산업은 단순 임가공 형태로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필수적임.
-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2018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순위는 조사 대상국 총 189개 국 중 146위로, 인접국인 태국(83위), 베트남(116위), 라오스(139위)에 비해 열위하며, 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와 OECD 등급이 동일한 6등급 국가인 스리랑카(76위), 동티모르(132위)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남.

사회동향

- 캄보디아는 기대교육기간(Expected years of schooling), 평균교육기간(Mean years of schooling) 등의 세부지표에서 비교대상국 대비 미흡한 수준임.

< 2018 인간개발지수 비교 >

	인간개발지수 순위	기대교육 기간(년)	평균교육 기간(년)	기대수명(년)	1인당 GNI (2011 PPP \$)
태국	83	14.7	7.6	75.5	15,516
베트남	116	12.7	8.2	76.5	5,859
라오스	139	11.2	5.2	67.0	6,070
스리랑카	76	13.9	10.9	75.5	11,326
동티모르	132	12.8	4.5	69.2	6,846
미얀마	148	10.0	4.9	66.7	5,567
네팔	149	12.2	4.9	70.6	2,471
캄보디아	146	11.7	4.8	69.3	3,413

국제관계

최근 친중국 행보 가속화

-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훈센 총리가 2018년 7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이후에도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서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이면에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 국면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현재 캄보디아와 중국의 관계는 수교 60주년 이래 가장 가까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일례로 중국은 2017년 9월 캄보디아 제1야당 총재의 갑작스런 구속과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언론 '캄보디아 데일리'의 폐간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에 힘을 실어주었음.
- 또한, 서방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와 인권,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이 훈센 총리 입장에서는 훨씬 대응하기 용이한 대외 파트너가 된 상황임.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캄보디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6년 10월 시진핑 주석, 2018년 1월 리커창 총리가 잇따라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향후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World Bank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캄보디아 외채의 48.4%를 차지한 중국이 캄보디아의 최대 채권국인 것으로 분석됨. 태국 만(Gulf of Thailand)에 인접한 캄보디아 유일의 항구도시인 시아누크빌 리조트 개발 사업에 중국이 약 11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캄보디아와 중국의 관계는 최근 캄보디아의 서방과 갈등 상황 하에서 중국과 협력 시 손쉽게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국제관계

EU,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 냉각

- 캄보디아는 EU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주력 수출산업인 봉제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었음. 한편 양호했던 캄보디아와 서방과의 관계는 2018년 7월 총선을 전후하여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양상임.
- EU는 2018년 11월 캄보디아 산 설탕과 의류 등에 대해 그동안 적용해 온 무관세 혜택인 'EBA (Everything But Arms: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 정책의 철회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하였음. 동 절차가 실제로 개시될 경우 캄보디아가 누려 온 무관세 혜택이 1년 안에 없어질 수 있음. 또한 미국 당국은 캄보디아 고위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캄보디아 외교부가 2018년 12월 3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를 위해 야당 정치인 100여 명에 대한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임을 밝히면서 야당 탄압이 완화되는 양상임.
- 한편, 다수의 언론과 조사기관에 의하면 EU의 제재는 발효될 가능성이 낮으며 발효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제재가 만약 발효될 경우 그 타격이 EU가 비판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치 세력보다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 기업 수는 약 60여 개로 EU 제재 발효 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한 상황임.
- * EBA는 최빈국에 조건 없이 부여하는 특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및 노동권 등과 관련된 15개 국제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중단할 수 있는 조건부 무역특혜 관세 정책임. 현재 EBA 지위를 가진 나라는 총 49개국으로 이 중 아시아 국가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라오스, 네팔 등 9개국임.

외채상환태도

외채구조 및 외채관리능력 양호

- 2017년 기준 총외채잔액 중 중장기외채 비율이 74.2%로 높고, 양허성 차관 비중도 2017년 53.6%로 양호한 수준임. 또한 외환보유액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IMF도 2017년 10월 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서 캄보디아의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채무재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원리금상환 지속

- 1972년 1월과 10월, 1995년 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중임.
- 1972년 두 차례의 채무재조정에 따른 원리금은 모두 상환하였음. 또한, 1995년 채무재조정으로 총 2.5억 달러의 채무 중 일부를 탕감받고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 중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D1(2018.12)	D1(2017.12)
OECD	6등급(2018.06)	6등급(2017.06)
Moody's	B2(2017.03)	B2(2014.03)
Fitch*	-	-

* 캄보디아는 Fitch의 평가대상국이 아님.

OECD, Moody's 신용등급 유지

- OECD와 Moody's는 최근 캄보디아의 견조한 경제 성장세와 양호한 외채 상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중임.
- Moody's는 당초 보고서에 2018년 총선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경제 하방 리스크로 언급하였으나, 2018년 12월 현재까지 등급(B2) 또는 전망(Stable)을 조정하지 않고 있음.

- 캄보디아는 봉제품 수출, 관광객 증가 및 정부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7%대 경제성장률을 지속중으로 경제 성장과 함께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를 이뤄 왔으며 당분간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다만, 봉제 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 및 생산성 제고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위해 인적 자원 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또한 후발 신흥국인 미얀마, 방글라데시와의 경쟁에 따른 봉제 산업 수출 규모 축소 가능성이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음.
- 2018년 7월 총선은 제1야당 없이 치러진 선거로 국민당과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이 확보되었으나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반발로 유럽, 미국 등 주요 봉제품 수입국이 캄보디아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 가능성을 제기하여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상을 고려하여 캄보디아의 신용등급은 기존 등급과 같은 D1으로 정하고자 함. 향후 중장기 국가발전 실천계획의 성패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과 국가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